

■ 주요 뉴스: FOMC 전망, 0.25%p 금리인상 예상. 성장둔화 관련 평가에도 관심

- 미국 재무장관, 세계 통화시장에서 달러화의 절대적 지위는 여전히 굳건
-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,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지. 다만 필요 시 속도조절 필요
- 중국 총리, 금년 성장률 목표 달성은 어려운 과제. 경기부양 노력이 요구

■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통화긴축 전망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2.9%], 달러화 상승[+0.5%], 금리 상승[+26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 지수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 기대 등으로 2.2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매수 증가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2.1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관측 등이 반영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32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4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3/11일	3/4일	전주말대비			3/11일	3/4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4,204.3	4,328.9	-2.88%	국채 금리 10y	미국	1.99%	1.73%	26bp
	유럽	431.17	421.78	2.23%		독일	0.25%	-0.07%	32bp
	중국	3,309.7	3,447.6	-4.00%	CDS 5y	한국	31bp	31bp	0bp
	일본	25,163	25,985	-3.17%		중국	58bp	61bp	-3bp
	한국	2,661.3	2,713.4	-1.92%	위험 지표	EMBI+	596	606	-10bp
환율	달러지수	99.12	98.65	0.48%		VIX	30.75	31.98	-3.85%
	유로화	1.0912	1.0928	-0.15%		WTI유	109.33	115.68	-5.49%
	엔화	117.29	114.82	-2.11%	원자재	구리	461.6	492.9	-6.35%
	위안화	6.3393	6.3196	-0.31%		금	1,988.5	1,970.7	0.90%
	원화	1,232.0	1,214.2	-1.44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FOMC 전망, 0.25%p 금리인상 예상. 성장둔화 관련 평가에도 관심

- 이번 주(15~16일) FOMC가 열릴 예정. 연준 파월 의장은 이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응하여 금리인상을 공식화. 연준 파월 의장의 이전 발언들을 고려할 경우 FOMC에서 0.25%p의 금리인상이 확실시
- 최근 선물시장에서 기준금리가 금년에 1.65%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예고. 이는 최소한 6회의 0.25%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. 다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성장둔화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
- SGH Macro Advisors의 Tim Duy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매파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좀 더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. 다만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유지 모두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
- 블룸버그의 Anno Wong은 연준이 지금 점진적인 통화긴축을 고수한다면, 나중에 통화긴축의 강도를 높여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. 한편 이번 FOMC에서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세계 통화시장에서 달러화의 절대적 지위는 여전히 굳건

- 옐런 재무장관은 대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위험성은 없다고 주장. 미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평가

■ 미국 기업이익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증가세 둔화될 전망

- 투자기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. Refinitive는 금년 기업이익 증가율은 전년대비 8%로 전년도 52%에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. 1/4분기와 2/4분기의 연간 이익증가율은 각각 6.2%, 5.7%로 추정

■ EU, 무역 부문 최혜국대우 박탈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를 논의

- EU는 제4차 대러시아 제재를 부과할 방침. 구체적으로 무역·경제 측면에서 최혜국대우 박탈이 이루어질 전망이며, G7도 해당 사안을 검토

■ EU 정상회의, 식량 등의 역외 의존도 낮출 방침. 우크라이나의 EU 조기 가입 반대

- 각국의 정상들은 식량 이외에 반도체, 의약품, 원재료,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어 EU의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. 이를 위해 각국의 예산 확충, 공공투자 확대,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기로 결정

■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,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지. 다만 필요 시 속도조절 필요

- 센테노 총재는 통화정책 전환 시에 EU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주장. 또한 정책전환은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, 통화정책의 성공을 위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연

■ 중국 총리, 금년 성장률 목표 달성은 어려운 과제.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

- 리커창 총리는 5.5%의 성장률 달성이 쉬운 일이 아니며, 이를 위해 거시경제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. 한편 미국과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나, 양국 간 사회체제, 발전과정이 다르기에 견해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

■ 중국 2월 위안화 신규 은행대출, 전월비 큰 폭 감소. 향후에는 다시 증가할 전망

- 인민은행에 따르면, 해당 은행대출은 1.23조위안으로 전월(3.98조위안) 대비 급감. 이번 결과는 춘절 기간에 앞서 대출이 앞당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.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강하기에 은행권 대출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

■ G7, 세계 주요 식량 생산국에 수출 제한 조치 취하지 않도록 요청

-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로 전세계적인 식량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. 농산물 관련 선물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, 모든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3/11 현지시각 기준)

- 독일 2월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): 5.5%, 1월(5.1%), 예상치(5.5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14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3월 Rightmove 주택가격지수, 중국 2월 해외직접투자
- 미국과 캐나다, 3/13일부터 서머타임 적용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채권시장, 불리한 경제 여건 불구 경기침체 가능성은 배제 - 블룸버그

(Fed Expectations Don't Add Up In the Debt Market)

- 최근 미국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, 연준의 통화긴축 전망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. 하지만 채권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
- 특히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역전되지 않았음에 주목. 이는 과거 사례 고려 시, 투자자들이 경기침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
- 그러나, 연준이 올해 시장의 예상대로 6~7차례 금리를 인상하고, 국채시장의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다면, 시장 참여자들의 경기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증폭. 이에 위험자산 매도세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

■ 러시아 경제, 채무불이행 여부의 분기점에 직면 - Reuters

(Debt deadline and central bank hikes loom in Russia)

- 서방국가의 제재에 의한 러시아 금융위기는 이번 주에 더욱 심화될 가능성. 당국은 금주(3/16일)에 도래하는 1.2억달러 규모의 달러화표시 국채 이자 상환에 직면하여 루블화로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, 이에 채무불이행이 거의 확실시
- 기술적으로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,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. S&P Global의 Roberto Sifon 역시 채무불이행이 임박했다고 평가
- 일부에서는 국영 에너지기업 Gazprom이 최근 달러화 표시 채권을 상환했고, 일부 사용 가능한 외환보유고가 있어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도 있다고 주장. 하지만 이러한 희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

■ 금주 미국 신용시장,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인플레이션·통화정책에 초점 - 블룸버그

(‘Uncertainty Reigns’ as Credit Market Looks to Fed to Set Tone)

■ 우크라이나 전쟁,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및 경제 안보 협력의 기회 - Financial Times

(We need a grand bargain on energy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